



*One touch of nature makes the whole world kin**

My name is Sister Sharon Carpenter. I was born and raised in California. As an only child and after the death of my mother, I lived with an extended family: my father, an older half-brother, his wife and their two children. Family vacations were in national parks. These experiences



implanted in me a love for the natural world, a oneness with the Earth and a love for the Creator. This love for the natural world gave me a concern and desire to care for all the less fortunate.

My academic career centered on social services. Practicing social work I experienced my client's desire for healing and justice. At this time in my life I had a humanistic value system, a supreme faith in human reason and wisdom. But, I began to question those beliefs. Those happy memories of nature experiences from my childhood led me to the truth that "homo sapiens" is poor and oppressed; but so, too, is the natural world. I realized the work of Charity is needed by all in our universe, and only something greater than humanism could sustain true Charity. Nature shares a coequality in the world, and it is the creator God who infuses all the natural order with value. I began to believe in a God who acts in Charity. Only through a community acting in Holy Charity on behalf of justice for all the poor would lasting change occur. And so I converted to Catholicism. Then, I felt I wanted to be part of a group that believed their collective action worked toward bringing about a lasting Charity – "*Caritas Christi urget nos.*" I professed final vows as a Sister of Charity at the ripe old age of 47.



The gifts of community life and the challenges of many social work opportunities blessed me with many graces. In my ministry in a parish, in hospice work, and as a therapist with sexual minority clients, I began to realize that justice means changing the systems that impoverish not only human kind but creation as well. Our community gave me the opportunity to spend six months at Rockhaven Ecozoic center in Missouri. I learned about the environment through practical experience and seminars. I began taking classes at St. Mary of the Woods College and received a certificate in Earth Literacy. Pope Francis's 2015 Encyclical *Laudato Si'* on care for our common home spoke to my heart.



Our congregational response to *Laudato Si'* was to form an interprovincial group. With my sisters in Korea we affirm the universal importance of Holy Charity for the

Earth. Responding to the urgent call of Pope Francis in *Laudato Si'* my hope is that all may come to recognize Our Earth Home and work to protect it.

* *William Shakespeare*

자연을 느끼는 한 번의 손길로 온 세상은 한 가족이 됩니다. *



새론 카펜터 Sharon Carpenter 수녀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외동딸이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와, 이복 오빠 부부, 두 조카와 함께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국립공원에서 휴가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자연 세계에 대한 사랑과 지구와의 일체감, 창조주에 대한 사랑을 심어 주었지요.



그리고 자연에 대한 사랑을 통해 모든 소외된 것에 관해 관심을 갖고 돌보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했습니다. 실제 사회 복지 일을 하면서 의뢰인들이 치유와 정의에 대한 갈망을 지니고 있음을 체험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인간적 가치 구조와 인간의 이성과 지혜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믿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연을 체험했던 행복한 기억은 우리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가난하고 억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고,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랑의 활동이 필요하며, 인본주의보다 더 위대한 그 어떤 것만이 진정한 사랑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모든 것이 상호 동등함을 세상에 알려주며, 모든 자연의 질서에 가치를 부여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느님이십니다. 저는 사랑으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정의를 위해 거룩한 사랑으로 활동하는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사랑이 일어나도록 일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하도다"라고 믿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47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사랑의 씨앗 수녀로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의 선물과 많은 사회복지 사도직을 통한 도전을 통해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당, 호스피스, 성소수자를 위한 치료사로 사도직을 하면서 정의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빈곤하게 하는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도회는 저에게 미주리주 록헤븐 에코조익 센터 Rockhaven Ecozoic center에서 6개월 동안의 체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실질적인 체험과 세미나를 통해 환경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인트 메리 오브 더 우즈 칼리지 St. Mary of the Woods College에서 수업을 받기 시작하여 지구 환경 이해 Earth Literacy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5년에 발표한 우리 공동의 집을 돌봄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수도회는 찬미받으소서에 대한 응답으로 관구간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국의 수녀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는 지구를 위한 거룩한 사랑의 보편적 중요성을 분명히 지지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찬미받으소서에서 긴급하게 요청하신 부름에 응답하며 저는 모두가 지구를 우리의 집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